



GLOBAL PARTNERS USA, INC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el. 714.774.9191 Fax. 714.774.9192

E-Mail: admin@gpusa.org yoonsnews@protonmail.com Homepage: www.gpusa.org

우리의 기억은 참 신기합니다. 하람이 주영이 택함이가 태어난 후 한 번도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젠 키국에서 살아보지 않은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겨울에 항상 보아왔던 풍경으로 되돌아 오니까 시간에 잡혀있는 거 같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올해도 흰눈이 세상을 덮었다 벗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눈이 오면 센터 뜰 안에 쌓인 눈 사이로 길을 냅니다. 정문 입구에서부터 교실까지 미리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밟는 곳은 단단해져 결국 제일 먼저 미끄러운 빙판이 되고말기 때문입니다. 센터 뜰을 밟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가길 바라는 마음에 또 삽질을 합니다.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삽질에도 몸에 열이나 금새 추위를 잊고 맙니다. 어느 해 찍이던 날 아무도 밟지 않은 융단같았던 눈밭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다 갔습니다. 울퉁불퉁해진 눈 발이랑 땀흘려 만들어 놓은 길이 아이들 발자국으로 금새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난 삽질한 거지만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논 흔적은 깨끗이 닦아놓은 길보다 마음을 더 흡족케합니다.



센터에 ㄱㅎ 청년들을 초대했습니다. 마을 아이들만 공부하고 뛰어놀던 공간에 처음으로 ㄱㅎ 청년들이 왔습니다. 먹성 좋은 청년들을 먹이느라 아내가 수고 많았습니다. 저녁 먹고 이야기 나누고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며 놀다 갔습니다. 몇년 전 오아시스 (고아원 보호 종료아동 대상 사역 단체) 에서 섬길 때 처음 만났던 아자도 개인적으로 초대했는데 못 왔습니다. 제일 보고 싶었던 친구였는데 일하고 집에 늦게 오면서 잊었다고 늦게 연락 왔습니다. 보고싶다며, 꼭 오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고민하다 어색해서 피한 건 아닐까 미안해집니다.

청년들에게 여성의 날 (3월 8일) 장소가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했더니 오늘(3월 3일) ㄱㅎ에서 만난 아딜한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다시 묻네요. 당연하지요. 여성의 날이니 음식은 남자들이 일찍 와서 준비할 거고 여성들에게는 아직 비밀이라며 쿿속말로 속삭입니다. 아이들이 귀여워요. 그날, 아니면 다음날 인도에서 손님들이 잠시 방문하실 계획이지만 겹쳐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센터가 북적덜 생각에 마음이 흡족해집니다.

약 7년 전 수줍게 인사하던 꼬마 트나르백이 8학년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센터와 연결되어 영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함께 공부하며 지켜본 트나르백은 성실합니다. 동네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엄마는 우리가 이사오기 전부터 센터를 열게되면 청소는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이야기해왔었습니다. 학교 월급이 박봉이라는 건 익히 짐작했지만 \$7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최근 알게되었습니다. 아들과 단 둘이 삼촌집에서 산다고 엄마가 이야기 했는데 트나르백은 아빠가 있다고 센터 등록 서류를 작성해서 왔

습니다. 아빠는 먼 곳에 산다고만 흘러 이야기하는데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80~90%의 결손가정 (어느 선생님 말에 의하면) 가운데 그도 하나일 테지요.

어느 아침 교장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 환담을 나누던 중 트나르벙에 대해 전해들은 한 마디가 봄 별처럼 따스히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학교 청소부로 일하면 다른 아이들은 부끄러워하기 마련인데 발이 불편한 이 아이는 엄마의 청소를 돕더라고. 학교에서 그리고 센터 수업에서 마주친 지난 7년동안 그가 지체 장애 학생인줄 역시 몰랐습니다. 등학교시 종종 손을 잡고 우리 집 앞을 걸어가는 두 모자를 보며 사이가 각 별한가 했던 짐작 이상으로 좋은 아들, 좋은 엄마였습니다.

밀가루 한 포대와 기름 한 통을 들고 트나르벙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어둡해진 골목 집 앞에서 말했습니다. “착한 아들 두신 당신은 복됩니다” 긴 설명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내 말 뜻을 이해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베리 종류의 잼 한 병을 선물로 받아들고 아내와 흐뭇한 미소를 띠며 돌아왔습니다.

"씨앗을 이렇게 일일이 빼서 만든 건 첨이야. 엄마도 아들처럼 성실하게 정성껏 만들었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더냐던 어느 시인의 이야기가 조용히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흔들리는 시절은 마치 불필요한 듯, 그 시절이 삽질로 여겨지기 마련이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꽃을 피울까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시간에도 그분은 꽃을 피우시고 그분의 일을 조용히 이뤄가시지 않겠습니까?

...

삼남매 엄마 이야기 (48)

2월부터는 시내 버스 요금이 50프로 넘게 인상되는 바람에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의 생활비 지출이 커졌습니다. 버스타고 우리 센터에 오는 아이들 중에 버스비가 오른 첫 주에는 공부하러 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주가 지난 후 다시 공부하러 오기로 결정해줘서 참 다행입니다.

먼 동네 아이들은 마을 어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와서 버스를 타고 공부하러 옵니다. 그렇게 버스정류장까지 걸어오는 길도 포장되지 않은 눈길이라 오는 정성을 생각하면 고맙고, 오는 걸음을 소중하게 대해야겠다는 싶습니다.

그렇게 힘든 길 걸어와서 책상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 언제 나가서 놀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한장이라도 더 풀고 가게 하고 싶지만, 아이들은 제가 준 연습지를 빨리 끝내고 나가서 놀 생각만 가득합니다. 우리 센터에는 그렇게 하나라도 더 배워오라고 보내는 엄마와 동네에 새로 놀 곳이 생긴 아이들의 오묘한 조화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두 요구를 충족시켜주길 원하지만 모두에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아줌마가 됩니다. 그래도 매번 웃으며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면 좋아하고 뿌듯해 하는게 보여서 참 고맙습니다.



한시간 꼭 참고 공부하고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놀 시간이 됩니다. 배드민턴과 배구공, 자전거 등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동시에 다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아무리 추워도 눈덮인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면 뒷 마당을 마저 정리해서 좀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집니다. 따뜻해져서 잡초가 올라오기 전에 뽕수를 내야 할 거 같은데, 조경이나 원예쪽으로는 정말 아무 아이디어나 경험이 없어서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올 해는 아이들이 이 공간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해 이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고향인 인도로 철수하신 후에도 이 곳의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 교회 목사님과 교단 지도자들을 모시고 우리 센터에 방문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센터 방문을 통해 이 곳 아이들의 필요가 잘 전달되고, 그 나라에서 준비하는 선생님들께도 따뜻하게 소개되어 서로서로 좋은 기회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 곳 아이들 소식을 쓰지만, 매일 저를 그리움에 눈물짓게 만드는 아이들은 하람이 주영이 택함이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 있어야 할 곳에 있지만, 제 맘 속에는 여전히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아이가 다 떠난 빈둥지 첫 해라 저만의 짝사랑이 좀 더 길어지나봅니다. 보고싶어도 가고싶어도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이 상황이 두려울 정도로 싫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지내기보다는 버티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듯한 제 모습도 어쩔 수 없는 저이기에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실 아버지께 힘들다고 아뢰어봅니다.

기도해주세요

1. 4월에 있을 지역회의가 순적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2. 홍역이 유행이라 동네 학교가 3주째 온라인수업인데, 빨리 안정되기를
3.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의 학업이 더딘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듬을 잘 안내하도록
4. 우리 가족(우리 부부와 세 아이)에게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도록